

광양시, 공원·도시숲 조성 녹색도시 구축 잔걸음

맨발 산책로·시민 운동길·무장애 도시숲 등 조성 시민 건강 증진 도모 등 도시 정주환경 개선 기대

광양시가 시민 건강 증진과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원 및 도시숲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광양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시민들의 일상과 자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데 주력한다.

사업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걷고 싶은 숲길 및 맨발 산책로 조성 ▲광양형 시민 운동길 조성 ▲무장애 도시숲 조성이다.

'걷고 싶은 숲길 및 맨발 산책로 조성'

은 도심 곳곳에 '걷고 싶은 숲길'과 '맨발 산책로'를 조성해 시민 건강 증진과 자연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도시 내 녹지 공간을 확충해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탄소를 저감하는데 목적이 있다.

'걷고 싶은 숲길'은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사업으로, 광양읍 우산공원에 1억7천여원을 투입해 328m의 산책로를 조성 중이며 7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마동저수지 생태공원의 '맨발



광양시가 시민 건강 증진과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원·도시숲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광양성황근린공원 전경. <광양시 제공>

향토길' 조성사업은 200m의 기존 산책로에 황토를 포설하고 촉각 체험장과 세족장을 신설하는 공사로 오는 8월 말

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광양형 '시민 운동길'은 시민들이 일상적인 이동 경로를 거닐며

자연스럽게 운동 효과를 얻고 동시에 단절된 녹지 공간을 하나로 이어 도시 생태계의 연결성을 높일 방침이다.

광양시는 시민 운동길 조성사업이 보행 환경, 정주 환경 등 도시 환경 전반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이순신대교와 삼화섬 일대의 관광 명소화 사업으로의 연계 가능성을 가능하고 있다.

광양시는 외우공원을 무장애 도시숲으로 조성한다. 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여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고령자나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포용 정책의 일환이다.

외우공원(1만6천789㎡)을 '장애물 없는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은 지난해 9월 수립됐으며, 향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무장애 놀이시설, 무장애 산책로, 음성 안내 시스템, 휠체어 이용자 노약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 점자 블록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다수 설치할 예정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많은 곳에서 공원과 도시숲을 즐길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며 "자연과 도시, 그리고 시민의 삶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모델 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구례군, '인구·지역경제' 활력 정책 빛났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서 '인구활력특별상' 수상 성과 1조4천억 양수발전소 유치·전국 최초 흙살리기 운동

구례군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인구활력특별상'을 받으며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한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14일 구례군에 따르면 최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9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인구활력특별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전국 지자체 중 1개 지자체에게만 주는 특별상이다.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최한 이번 시상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장려·전파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구례군이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사활을 걸었던 주요 사업은 1조4천억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양수발전소 유치가 성공하

면서 총 6천여원의 자금 유입과 6천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탄소중립 흙 살리기 운동도 큰 관심을 받았다. 구례군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 흙 살리기 선포식을 개최하고, 정치권과 연대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흙 살리기를 국가적 의제로 이슈화했다.

또한 화학비료 대신 다시마 액비를 적용한 실증 시험을 통해 획기적인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전국에 전파하기 위해 오는 9월 '흙 살리기 박람회'를 개최한다.

특히 탄소중립을 통한 지역의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2천643억원이 투자되는 자연드림 치유힐링 클러스터 유치가 성공했다. 이를 통해 1천개 이상의 일자리가 공급될

전망이다.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유지에도 힘썼다. 관광도시라는 강점을 살리기 위해 그간 보전에만 치우쳤던 섬진강의 새로운 관광 거점화에 주력했다. 지난 2021년 인구 광양시·곡성군·하동군과 협약을 체결,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정부에 건의해 1천133억원의 사업비 확보에 성공했다.

이와 함께 오산 케이볼파크와 지리산 온천 골프장 조성 사업도 민자 유치에 성공해 구례 관광 제2레너상스 도약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 2023년 전남체육대회 유치를 확정하며 스포츠 강군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그간의 노력이 모범사례로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강점을 살려 구례에 산다는 것이 자랑이 되는 명품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구례군이 최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9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인구활력특별상'을 수상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구례군 제공>

장성군의회 '태양광발전사업 연구용역' 착수

연말까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 사례 분석

장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 연구회는 "최근 군의회 상임위실에서 '장성군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성군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정책개발연구회'는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

한 정책 발굴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해 설립된 의원 연구단체다.

이번 보고회에는 장성군의회 전임과 용역 수행을 맡은 책임연구원, 의회사무과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연구 용역은 지난 6월부터 오는 12월 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며, 장성군에 적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분석 및 설문조사, 국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사례 분석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주민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철원 의원은 "장성군은 태양광 발전 시설의 허가기준에 따른 제한을 많이 받는 실정으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한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으로 주민소득 창출에 대한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는 오는 8월 개최될 예정이다.

<장성=김문태 기자

'화순 1만원 임대주택' 당첨자 전원 계약

9월까지 입주 완료...청년인구 유입 기대

화순군은 "최근 만원 임대주택 입주 당첨자 101호 모두 계약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화순군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결과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월 1만원 임대료에 20평형 공공 임대아파트를 제공한다.

계약자 101호 중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50호(49.5%), 광주시 35호(34.7%), 그 외 지역 16명(15.8%)으로 청년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의 활력이

기대된다. 8월 중순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한 달간 입주 기간을 뒤 9월까지 당첨자 모두가 입주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입주가 지연된 만큼 청년·신혼부부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은 물론 화순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순천만국가정원이 개장 100일 만에 누적관객 176만명과 수익 100억원을 달성하며 연일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만국가정원, 개장 100일 만에 관람객 176만명 돌파

수익 100억 달성도...주말 '썸머 가든클럽 페스타' 등 선별

순천만국가정원이 개장 100일 만에 누적관객 176만명과 수익 100억원을 달성하며 정원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아날로그 정원에 우주 콘텐츠를 품고 특별한 정원으로 다시 태어난 순천만국가정원이 개장 100일을 맞이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개장 첫 주 만에 21만명의 관람객을 돌파하며 개장 100일 만에 176만명의 관람객이 정원을 방문했다.

이는 지난해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

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관람객들에게 입소문이 난 것은 물론, 정원 내 각종 시설에 문화콘텐츠를 접목해 리뉴얼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자아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개장 초기부터 주한미군 600여명을 비롯해 외국인 관람객 약 1만4천여명이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하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올해 처음으로 전면 직영체제로 개편하면서 입장료 현실화, 각종 체험시설 이용료, 수익시설

임대료 등으로 현재까지 약 100억원의 수익을 기록 중이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하며, 7월부터 매주 주말 '썸머 가든클럽 페스타'를 진행한다. 이번 페스타에는 디제이 공연과 함께하는 '정원클럽'과 '에니벤츠 야간 정원관람차'가 여름 한정으로 운영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정원의 자연과 다양한 콘텐츠가 계절마다 다른 매력으로 관람객을 매료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

여수시, '혈중 비타민D 무료 검사' 실시

시민 2천500명 대상...중부보건진료소 신분증 차명 방문

여수시는 14일 "각종 질환으로부터 시민들의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 '혈중 비타민D 무료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수 시민 2천533명을 대상으로 비타민D 수치를 검사한 결과 63%(1천633명)가 부족 또는 결핍 증상을 보

였다. 특히 10~30대 등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족·결핍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현대인들의 야외활동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여수시는 시민 2천500명을 대상으로 무료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700명이 검사를 마쳤으며 선착

순으로 마감한다.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여수시 중부보건진료소(여수동 주민센터 옆)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비타민D 수치가 낮게 나타난 경우, 3~4개월간 식생활 개선과 영양제 보충 후 재검사를 통해 개선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총 3회까지 가능하다.

여수시 관계자는 "비타민D는 사람에게 따라 흡수되는 양이 다르며, 검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담양군의회, 하반기 의정활동 본격화

후반기 의정과제 발굴 위한 소통 행보 개시

담양군의회는 14일 "지난달 30일 선거를 통해 정철원 의장, 최용호 부의장, 조관훈 의회운영위원장, 이기범 자치행정위원장, 최현동 산업건설위원장 등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1일 개원식을 통해 제9대 후반기 담양군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의 첫 시작으로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지역 은행을 비롯한 유관기관 방문을 통해 취임 인사를 행정위원장, 최현동 산업건설위원장 등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1일 개원식을 통해 제9대 후반기 담양군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읍·면사무소 방문에는 읍·면장을 비

롯해 이장단장, 주민자치위원장, 지역농협장 등 사회단체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철원 담양군의회 의장은 "제9대 후반기 의회의 첫 공식일정으로 동료의원들과 함께 유관기관 및 12개 읍·면 방문을 계획, 지역발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의회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후반기 의정과제와 정책 발굴을 위해 당분간 지속적인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